

## <성평등 공모전>

정치외교학과 201822028 김지연

### 1.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

성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반 기회의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 평등은 '혐오'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10대이던 시절보다 20대인 현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 평등,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 더욱 예민해지고 주의 깊어진 것 같다. 이로 인해 그 이전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뚜렷한 성 역할 등으로 인해 받았던 억압이 사라지고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기치 않은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서로에 대한 '혐오'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 평등의 본래 목적은 상위 범주인 사람에서 하위 범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줄이고 상위 범주로 수렴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현재의 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하위 범주인 남성과 여성을 더욱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면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싸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상대 성별을 같이 공존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행동에 서로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으며 적대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성 평등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자신만의 확고한 의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정 행동 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지는 것 같다.

내가 경험한 대표적인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마케팅 부서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발생한 이야기다. 그 당시에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크기를 재는 손동작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마케팅을 위한 광고 이미지 제작을 할 때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당시 꿀떡을 집어먹는 광고를 제작해야 했는데, 단순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행동을 혐오 또는 낙인의 우려로 제한 당해야 하는 사회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다음으로는 '페미니즘'이란 사상이 잘 못 인식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애초에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성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하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남성 혐오'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잘 못 인식되고 있다. 본래의 의미를 잃고 혐오의 의미로 굳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나는 안타깝게 느껴졌다.

양쪽 성별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요즘 사회의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성 평등이 혐오가 아닌, 성별 양극화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묶여서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 들었다. 성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차이,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차이, 문화 종교 인종 등에서 오는 차이로 누군가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그들에게 가하는 위협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 암울하고 척박한 세상이 될 것 같아서 더욱 걱정이 된다.

## 2. 성희롱,성폭력,폭력예방교육 이수 소감

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미시적인 것들까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꼈다. '성희롱·성폭행·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코로나19 인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항공, 운송 등의 사업, 자영업자 등의 문제를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의 추가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끔찍한 문제이고 시간일 것이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 가정폭력의 증가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전승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끊어내야 하는 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을 듣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항상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문제들만 생각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성희롱·성폭행·가정폭력처럼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 언론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 3. 온라인 수업 중 발생하는 성희롱, 캡처 등 관련 사고 예방, 대응방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디오를 켜고 진행하는 시간에 많은 문제가 있다. 타인의 화면을 클릭하여 지나치게 응시하는 행위, 캡처해서 유포하는 행위 또한 커뮤니티에 타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글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있다.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이고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이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잘 못된 행동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 등을 언급한 후 잘못된 행동임을 확실하게 전달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센터들이 각각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도 주기적으로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